

다시 흥행 물결...KBO리그 '골든타임' 잡아라

지난해 관중 감소 충격 위기로 대두 올해 90경기 만에 100만 돌파 반등 원로 야구인들 "마지막 기회" 경고

수년째 '야구 위기론'이 화두였다. 경기력과 팬 서비스 모두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당시 불거진 야구대표팀 구성 논란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야구는 중주국인 미국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퇴출되는 분위기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는 타이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왔다.

지난해 KBO리그 총 관중은 807만 3742명이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800만 관중 돌파에는 성공했지만, 2017년(840만688명)에 비하면 4%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관중감소는 2013년 이후 5년만이었다. 그대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 비판적 전망이 등장했다.

●빅매치 효과, 관중수 상승곡선

그러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관중수는 상승곡선으로 진입했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잠실 라이벌전',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부창 더비' 등 팬들의 흥미를 끄는 매치업의 영향이 컸다. 조금은 따뜻한 날씨에 가족 단위 팬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14일까지 95경기를 치



KBO리그는 올 시즌 9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는 2경기 빠른 페이스다. 14일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맞붙은 고척스카이돔에도 휴일을 맞아 1만338명의 제법 많은 관중이 입장했다.

렀고, 107만4289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13일에는 90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해(92경기)보다 빠른 페이스다.

관중몰이의 기수는 단연 NC다. 메이저 리그급 신구장 창원NC파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NC의 역대 최다관중은 2016년의 54만9125명인데, 올해 NC와 창원시는 10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내걸었다.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전통의 인기 구단 KIA 타이거즈(-14.7%)와 한화 이글스(-19.4%), 두산(-25.4%)의 초반 페이스는 다소 주춤하다. 그러나 이들의 흥행부진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 구단 관계자는 "결국 이들은 시즌 종료 후 어느 정도 평균

에 수렴해있을 것"이라며 "고정적인 티켓 파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제 10경기 안팎 치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지난 주말 대구구장을 찾은 한 원로 야구인은 "날이 풀리니 확실히 관중이 많아졌다. 이번이 한국야구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통산3사는 5세대(G) 시대의 광고 타깃으로 야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다만 점차 현상유지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관중감소세와 올 시즌 초 일부 구단의 흥행부진은 팬들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

또 다른 원로 야구인은 "모든 팀이 우승

Table with 4 columns: 구단, 2019년 (홈경기 수), 2018년, 증감폭. Lists teams like SK, LG, KIA, etc. with their attendance and percentage change.

* 14일 현재

하겨가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적 이변의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잠실 라이벌전이나 부창 더비의 관중 생김새도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논란이 되는 팬 서비스는 개선할 때가 이미 지났다. 조금씩 선수들과 구단의 마인드가 열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할 차례다.

대구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오승환 2실점...평균자책점 7.20



오승환

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이 14일(한국시간)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뒤진 8회말 구원등판했으나, 아웃카운트를 한 개도 잡지 못하고 1안타 1볼넷 1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삼진 한 개가 폭투를 동반한 스트라이카아웃 낚아웃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아웃카운트가 없게 등판을 마친 것이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종전 3.60에서 7.20으로 나빠졌고, 콜로라도는 2-5로 졌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프로야구 기록실 (14일)

경기 결과

Table showing game results for various teams like SK, LG, KIA, etc. with scores and statistics.

Before & After 7-Game

Table showing player statistics for various teams like SK, LG, KIA, etc. including batting average, home runs, etc.

프로야구 기록표 (14일)

KT-삼성 3차전 (삼성 2승 1패)

Scoreboard for KT vs Samsung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Scoreboard for LG vs KIA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롯데-NC 3차전 (NC 3승)

Scoreboard for Lotte vs NC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Scoreboard for Hanwha vs KIAM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한화-키움 3차전 (한화 1승 2패)

Scoreboard for Hanwha vs Kiwoon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두산-LG 잠실 3차전 (두산 1승 2패)

Scoreboard for Doosan vs LG game 3 at Jamsil,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KIA-SK 3차전 (KIA 2승 1무)

Scoreboard for KIA vs SK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Scoreboard for Doosan vs LG game 3,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두산-LG 잠실 3차전 (두산 1승 2패)

Scoreboard for Doosan vs LG game 3 at Jamsil, showing innings, runs, hits, errors, and player stats.

오늘의 토로 (15일)

Table with 4 columns: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Lists upcoming games for 4/15.

남자 프로농구 (14일)

Table showing basketball game results for various teams like LG, SK, etc.

프로축구 (14일)

Table showing futsal game results for various teams like Ulsan, Seoul, etc.

하하리큐 K리그1 2019 (7R) 경기결과

Table showing K-League 1 game results for various teams like Seongnam, Ulsan, etc.